

‘산업 대전환’ 시동...반도체·디스플레이 초격차 만든다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 투입...민관 협력 40개 프로젝트 선정 시장·산업전문가, R&D 전 과정 주도...전문성 보완·시장 수요 반영

정부가 반도체 등 11대 핵심투자 분야에서 40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선정해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하는 한편 민간 기업에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포스코, LG이노텍,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9개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와 4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CTO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

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해법이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보고 경쟁국과의 첨단·주력산업 기술 격차 확대 및 고성장시장 선점을 위해 R&D 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민관이 함께 분야별로 명확한 목표와 투자 방향을 정하고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기술 개발 전 과정의 실질적인 권한은 민간 기업이 갖게 된다.

이는 그간 정부의 R&D 투자 방향성이 불분명해

시류에 편승하는 사업과 과제가 양산됐고, 기업의 니즈(요구사항)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첨단제조, 지능형 로봇, 항공·방산,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신산업 등 11개 핵심투자 분야에서 34개 미션을 발굴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 검토 회의를 거쳐 각각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40개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개 미션과 4개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빌리티-에너지-가전용 화합물 전력반도체를 개발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등 2

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해 1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첨단패키징용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12인치급 첨단반도체 웨이퍼 소재·부품·장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미니 팹(공장)’을 구축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선정된 프로젝트에 매년 신규 R&D 예산의 70%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신규 사업 발굴, 계속사업 신규과제 등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6조2000억원, 2030년까지 13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목표다.

아울러 산업부는 초격차 프로젝트의 실질적 운영 권한을 시장·산업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

트 관리자 그룹’에 부여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 인력 양성, 기반 구축 사업 등 과정을 주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업종별 사업·과제 전 주기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었지만, 기업·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 관리자 그룹을 구성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간 소규모 과제를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여러 주체가 각각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연구개발 사업을 대형 과제 단위로 나눠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음 다양한 기술을 연계해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9개 기업과 4대 전문가단은 초격차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제철 흑산도 홍어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수산매장에서 직원들이 흑산도 홍어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13일까지 제철 맛은 ‘흑산도 홍어 특별기획전’을 진행해 흑산도수협 원산지 증명코드를 받은 원물 1마리(6kg 이상)를 28만원에 판매, 손질된 홍어 부위별로 100g당 1만4500원에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삼성전자, 특허 272건 중기에 무료 ‘기술나눔’

모바일·의료기기 등 8개 분야 다음달 12일까지 참여기업 접수

삼성전자가 올해 모바일기기, 반도체소재, 디스플레이, 의료기기 등 총 8개 기술 분야에서 272건의 특허를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할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한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02개 기업에 959건의 특허를 무료로 이전했다.

2020년 삼성전자로부터 오디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전받은 ㈜벨레는 삼성전자 기술나눔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이 기업은 삼성전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가구와 스피커를 결합한 블루투스 테이블 스피커를 개발해 해외시장에도 진출했다.

2020년 대비 지난해 매출은 50%, 고용은 80%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2013년부터 추진된 기술나눔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3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 제공 기관으로 참여해 총 1416개 기업에 2979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신보 ‘찾아가는 금융버스’ 첫 운영

광주은행과 보증·재무 상담 등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최근 강진군 마량면 한 주차장에서 금융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버스’를 보내 최초로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찾아가는 금융버스’는 전남신보와 광주은행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도내 소외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다. 또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경제활성화센터도 참여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운영석)은 10일 오후 3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한 모범 기업인 대표 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전하고, 경영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석 청장은 “경제위기에 불구하고 성실납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 모범납세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이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전남신보는 이날 유관기관과 협업체 보증상담부터 대출, 컨설팅, 재무상담 등의 다양한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은 “원거리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생으로 바쁜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내어 재단을 방문하는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금융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간담회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2.08 (+21.67)
↑ 코스닥	887.78 (+7.71)
↓ 금리(국고채 3년)	3.192 (-0.048)
↑ 환율(USD)	1319.70 (+3.00)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